

군산 · 서천 역사 스크린 속에

‘색다른 감동 선사’ 금강역사영화제 성료
동국사 소장 기록영화 ‘만선시찰’ 최초공개

군산시와 서천군 양 도시 간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최초의 역사영화제인 ‘제1회 금강역사영화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군산예술의전당 동국사 롯데시네마군산홀, 서천기법포영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개최된 금강역사영화제는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남북에 인접한 양 도시가 지닌 역사성을 소재로 해 협업·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다른 영화제들과 다른 고유의 지역성과 차별성 있는 주제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18일 서천군 기법포영화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레드카펫 행사와 이승만 밴드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으며 부산극 제영화제 전주극영화제 등 영화계 주요 인사들과 금강역사영화제 홍보대사인 배우 김응수씨를 비롯한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해 영화제의 발전을 축하했다. 개막작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보는 시인의 시선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2회 수상에 빛나

는 거장 빌 어거스트 감독이 제작한 대작 언더파이어가 상영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폐막작으로 상영된 중국영화 ‘2’는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통해 역사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됐으며 특히 영화 상영과 함께 영화제자를 많은 중국 귀국 감독이 특별 내한 방문해 관객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 의미를 더했다.

이밖에 지역 특별 상영으로 군산의 아미추어 영화제작동호회(세네군산에서 제작한 다큐영화(4편) 상영과 함께 1983년에 제작된 95mm필름으로 동국사에서 소장중인 기록영화 ‘만선시찰’이 최초로 공개 상영됐다.

또한 예술의전당에서는 군산의 초원 사진관을 관광명소로 만든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개봉 20주년 기념으로 재개봉 상영하고 영화를 제작한



하진호 감독이 직접 참여하는 관객과의 세네마 토크 행사가 진행되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영작으로 엄선된 총 17편의 비경쟁작 영화작품은 모두 별도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상영해 누구나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었다.

/군산=김정훈기자

6.13 지방선거 당선자 인터뷰 - 군산시 기초의원 아선거구

“성원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민주당 서동완 · 무소속 김우민 시의원 당선인

6월 13일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군산시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라북도 다른 지역과 같이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서동완 당선자



김우민 당선자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난 12년 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쁘지만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의원은 “8대 시의회에서도 다선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과의 소통, 시 집행부와 소통에도 힘쓰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늘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이번 선거까지 내리 4선에

성공한 무소속 김우민 당선인은 “집권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신 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을 때는 없었지만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시민에게 인정받는 지역주민들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당선인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땀을 뚫어낸 극복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활기’

5억6천만원 사업비로 2012년부터 6년동안 933호 집수리

익산시가 복권기금을 활용,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29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 받은 140가구의 대상주택을 방문해 낡은 집에 대한 구조안전 및 지붕보수, 벽체 단열 및 창호, 보일러 등을 실측조사하고 현재 45가구, 32%에 이르는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자활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포함 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400만원 이내 지원금 수, 벽체, 에너지 단열공사 등을 추진하며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33호의 집수리를 꾸준히 진행해 익산시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시골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시, 목재, 도배, 벽지 등을 관내에서 구입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불편함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올 상반기 사회적기업 세움아카데미 열어

익산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상반기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세움아카데미)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모현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익산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사회적기업 희망(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관심이 있는 시민 및 익산시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약 100여명 정도 참여한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례 중심의 기

본 교육이론,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선도 기업인(사)글로벌투게더 김재, (주)뉴이달발 빵, (주)연을 담다, (주)미정점의 대표들의 생생한 기업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들려주고 교육 참여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수익구조 및 수익모델 설계 등의 심도있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오는 7월에 있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통해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세움아카데미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14개를 발굴 하였으며 올해도 20여 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 및 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 기업 희망(예비)창업자 또는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익산시민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859-3406)로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노인학대 예방홍보 캠페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부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지환)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어안동 하나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 홍보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적으로 노인학대의 시례와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해 노인학대 예방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보다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익산시청, 경찰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과 봉사자가 참여하여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리플릿 배부, 노인학대 신고번호 홍보, 효 의식도 조사를 진행하며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학대 예방의식을 강화했다. 노인학대 관련 신고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전국체전 대비 민관합동 방제활동

익산시가 민간자원봉사단체 및 소독업체(7팀소독전북) 150여 명과 함께 지난 15~16일 2일에 걸쳐 전국체전 대비 민·관 합동 방제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제활동 지역은 하나로 주변 IC진입로, 신동 대학로 일원 취약지역을 선정, 도로변 잡초제거 및 환경폐기물을 줍는 한편 방역기동반 2개 팀, 민간소독업체 1개 팀이 다양한 장비로 동원해 친환경 방제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여름철 위생해충이 출몰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발생차단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 후 방역 취약지역에 효율적인 소독(연무, 연막)방법으로 추진하고 하절기 및 전국체전을 맞이해 매일 15일은 29개 읍면동 일제방역의 날 운영은 물론 민·관 합동 방제활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광 보건소장은 “5월부터 10월까지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으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추진상황보고회 열고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 집중

군산시는 지난 15일 한준수 부시장 주재로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주요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집행률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국GM사태로 야기된 대량 실업 발생으로 인해 군산시가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강조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는 대형사업 비중이 높아 2분기에 접어들면서 신속집행에 부진한 경향을 보여 왔으나 민간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SOC 사업에 집중적인 집행을 추진하여 6월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1분기 일자리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돼 2,8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